

서울둘레길 2.0 유지관리(전환)

1 기본 현황

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서울둘레길 운영 및 유지관리,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등		
사업비 (당해년도)	972,000천원	(국비)	(사비)972,00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푸른도시여가국	공원여가사업과	이은주 2133-9356	임록화 2133-9368	최형순 2133-9376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23예산액 (A)	2024예산액 (B)	증감 (B-A)	
				(B-A)*100/A
계	(x-) 656,150	(x-) 972,000	(x-) 315,850	(x-) 48
사무관리비	(x-) 256,150	(x-) 252,000	(x-) △4,150	(x-) △2
민간위탁금	(x-) 400,000	(x-) 700,000	(x-) 300,000	(x-) 75
공기관등에대한경 상적위탁사업비	(x-) 0	(x-) 20,000	(x-) 20,000	(x-) 100

산출근거

과목구분	2024년 예산내역		
사무관리비	○ 서울둘레길 운영 관련 인쇄비용 200,000,000원	=	200,000천원
	○ 서울둘레길 2.0 등 홍보비용 52,000,000원	=	52,000천원
민간위탁금	○ 민간위탁금 700,000,000원	=	700,000천원
공기관등에대한경상 적위탁사업비	○ 서울형 치유의 숲길 및 서울둘레길 홍보 20,000,000원	=	20,000천원

3 사업 설명

사업목적

- 서울둘레길을 대표 트래킹코스로 유지관리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사업근거

-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(숲길의 조성 등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사업내용

- 위 치 : 서울둘레길 21코스
- 규 모 : 156.5km
-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- 추진내용 : 서울둘레길 운영 및 유지관리, 프로그램 운영, 홍보 등

추진경위

- 2009 ~ 2014 : 서울둘레길 156.5km 조성
- 2014. 11. 15. : 서울둘레길 개통
- 2015 ~ : 서울둘레길 유지보수 실시, 프로그램 운영, 홍보 등 시행
- 2015. 7. : 서울둘레길 민간위탁 시행(2017. 12. 31.까지)
- 2018. 1. : 서울둘레길 민간위탁 시행(2020. 12. 31.까지)
- 2021. 1. ~ 2023. 12. : 서울둘레길 민간위탁 운영

2024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--------	------	--------	--------

계		972,000	
추진계획 수립	2024.01~2024.02	0	서울둘레길 관리운영 추진계획 수립
민간위탁 추진	2024.01~2024.12	700,000	서울둘레길 민간위탁 추진
서울둘레길 홍보 등 운영	2024.01~2024.12	272,000	서울둘레길 홍보, 인쇄물 인쇄 등

4 사업 효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21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둘레길 관리운영, 민간위탁 실시 - 서울둘레길 완주자 11,611명 - 가을걷기 축제, 코스가이드, UCC공모전 등 행사 참여 3,061명
2022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둘레길 관리운영, 민간위탁 실시 - 서울둘레길 완주자 9,307명 - 플로깅, 서울둘레길 걷기후기 등 행사참여 1,562명 - '22. 10~11. 중 가을걷기축제, 코스가이드, 야간트래킹 실시
2023년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둘레길 관리운영, 민간위탁 실시 - 서울둘레길 완주자 4,547명(23.7.기준) - '22. 10~11. 중 가을걷기축제, 코스가이드, 야간트래킹 실시(예정)

□ 향후 기대효과

- 서울둘레길 유지관리로 국내외 대표 트래킹코스로 정착